

전남도, 430억 들여 저출생 극복 28개 사업 추진

다자녀 행복카드·난임 지원 확대 등 28개 사업 433억 투입 “지역민 공감·체감할 수요 맞춤형 출산 지원정책 추진할 것”

전남도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올해 28개 사업에 433억 원을 투입한다. 난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맞춤형 출산지원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합계출산율이 0.97명(전국 평균 0.78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출생아수는 매년 줄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출산친화 환경 조성 및 임신·출산 지원, 출산가정 자녀양육 부담 경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저출생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점 수수료 감면 등 등 3개 사업에 2억 원을 투입한다.

다자녀 행복카드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지역농협이 발급해 주는 카드로, 올해부터 막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병·의원, 편의점, 커피숍 등 신규 혜택을 추가·확대했다.

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125억 원을 투입한다. 전국 최초·최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중인 가운데 내년 개원을 목표로 목포, 광양, 여수, 영광 등 4곳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만혼, 늦은 출생 등으로 난임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양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과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20만~15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도 나이 제한 없이 1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방문 상담,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올해 신규로 고연령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냉동 시술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출산가정 부담을 덜기 위해 첫만남이 옹권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 12개 사업에 30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첫만남이옹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을 바우처(카드포인트)로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초저출생을 타개하기 위해 출산·양육 환경 개선, 다자녀 지원 확대 등 지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요 맞춤형 출산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가격 폭락 ‘겨울무 수급 안정’...aT, 6천t 수매 착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산물 수급 균형과 가격 폭락 방지를 위해 6000t 규모의 겨울무 수매를 시작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겨울무 산지의 정식시기 변화 등으로 월별 공급량 편차가 컸으므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aT에 따르면 현재 제주를 중심으로 출하 중인 겨울무는 조기정식과 조기출하로 1월 현재 평년보다 많은 양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2월 출하량이 그만큼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초과 공급에 따라 도매가격은 kg당 900원 수준으로 평년보다 20% 이상 하락하는 바람에 제주지역 생산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수매 조치로 월별 공급량 편차 완화와 함께 생산 농가의 피해를 일부 줄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aT는 비축한 겨울무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한 후 한파로 인한 공급 불안이나 설·수확물 물가 안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 이사는 “성출하기를 맞이한 겨울무를 확보해 겨울철과 설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석연기자

대한건축사협회장 선거... 첫 ‘비수도권 출신’ 탄생할까?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출신으로 처음 출마한 정명철 전 광주시건축사협회의 선전 여부가 관심이 쏠린다.

17일 지역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건축사협회장 선거가 이날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온라인(www.kevoting.co.kr)으로 진행된다. 1만7000여명 건축사들이 투표에 참여한다.

이번 선거는 비수도권 후보인 정 전 회장(㈜엘이엠티그룹 건축사사무소)을 비롯해 3선에 도전하는 현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태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 김재록 서울시건축사협회장(㈜청구건축사사무소)이 뛰고 있다.

정 후보는 광주·전남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에서 대한건축사협회장 출마는 협회 창립 58년 이래 처음이다.

정 후보는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와 전남대학교 산업·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석·박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행정학과(석사)를 졸업했다. 또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협회장,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업무대가 현실화, 업역수호 및 확장, 건축사 권익 향상 등 '3가지 법제화와 회원복지, 업무지원, 각 시·도 건축사회 등 '3배 지원, 회장 임기 3년 단임제, 복식부기제 도입, 수익사업 발굴, 회원 업무지원 위한 각종 협의체 구성, 사무처 구조 혁신, 건축사서비스팀 부활, 협회 상주 통한 관리 강화 등 7가지 약속 등 이른바 3·3·7 공약을 제시했다.

김희연기자

“농산어촌 유학 오세요” 전남교육청, 서울서 홍보 상담



정주형 장기 유학 등 교육박람회서 집중 홍보

전남교육청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1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 전남 작은학교와 농산어촌유학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이 미래다”를 주제로 20개국 550개사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교육청은 전남의 작은학교를 농산어촌유학과 연계해 홍보, 외지 학생 유입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6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기존 농산어촌유학을 보완, 유학 온 지역에 전 가족이 이주해 최소 3년 이상 생활하는 정주형 장기유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농산어촌유학 참여 학부모가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주거환경과 일자리 문제라는 점을 고려, 전남도청과 시·군청의 귀농귀촌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마련, 유학경비 지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농산어촌유학 사업이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의 작은 학교에 희망을 안겨주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광주 광산구 화훼관광단지 인근 노후 송수관로 공사 오늘부터 단수·차량 우회

광주 광산구 우산동 화훼관광단지 인근 도로에서 ‘노후 송수관로 개량 공사’가 진행돼 차량통행이 일부 통제된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광산구 우산동 화훼관광단지 인근 도로에서 18일부터 ‘노후 송수관로 개량공사’가 예정돼 일부 구간이 통제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구간(우산동 769-1~우산동 202-1)은 제수밸브실 등 상수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 전체 폭 굴착이 불가피해 설치기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 구간 차량은 우회해야 한다. 또 23일 야간부터 24일 오전까지 제수밸브실 설치를 위해 송수관로 수계조절에 따른 단수조치 등이 예정돼 있어 광산구 우산동 일대 주민들은 수질상태를 확인한 후 수도물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임형택기자

무등산·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습지 2곳 새로 발견

광주 북구 무등산국립공원 평두메습지.



광주·전남 지역 국립공원에서 습지 2곳이 새로 발견됐다.

17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이 발견한 ‘국립공원 내륙습지 보전 관리방안’ 보고서

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 국립공원 안에서 신규습지가 1곳씩 발견됐다.

국립공원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습지 가능성이 높은 지역 24곳을 현장 조사해 신규 습지 11곳을 발굴했다.

광주·전남에서는 무등산(광주 북구 금곡동 768번지)과 지리산(전남 구례군 방광리 25번지)에서 습지가 발견됐다.

무등산 습지는 1997.79㎡규모로, 풍암제와 원호계곡 사이에 위치해 있다.

하천 두 곳이 만나는 이 지역에는 버드나무 군락과 갈대, 사초 기둥이 형성돼 있다. 습지는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4973.79㎡크기인 지리산 습지는 과거 주거지와 경작지로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태는 양호한 수준으로, 현재는 멧돼지와 고라니의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변에는 버드나무와 물푸레나무, 사초 군락이 형성됐다.

서선옥기자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년단 579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 망 자 : 망 김중선 (440417-1233611)
최 후 주 소 : 순천시 도서관길 41, 201호(동외동)

위 망 김중선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4년 1월 18일

공 고 인 : 임정심, 김정희, 김승희, 김현희, 김수학.
주 소 : 순천시 도서관길 41, 201호(동외동)
한정승인수리일 : 2024년 1월 11일
공 고 기 간 : 2024. 1. 18 ~ 2024. 3. 18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23.년단 112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강경석 (630619-1567916)
최 후 주 소 : 전남 진도군 지산면 하봉암길 3(가치리)

위 망 강경석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4년 1월 18일

공 고 인 : 강대성, 강대현, 강대준.
주 소 : 서울 구로구 구일로 130, 503호(구로동, 쿠팡파크구일)
한정승인수리일 : 2024년 1월 10일
공 고 기 간 : 2024. 1. 18 ~ 2024. 3. 18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1.77배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5분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분위	1.7배	2.1배	2.7배
3분위	48,103원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